

오락가락 입시 ... 中3 교실 “우리가 실험용 마루타냐?”

졸속 대입전형에 학생·학부모 대혼란 자사고 등 유리... ‘일반고 살리기’ 역행

“우리가 마루타가요, 이랬다 저랬다 실험용으로 삼게...”, “수능 영어를 대체한다기에 NEAT도 봤는데 이제 어찌죠”, “수학이 싫은데 문·이과 구분을 없애면 수II까지 해야 한다면서요”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A중학교 3학년 교실. 2~3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대입제도 변경 탓에 중3 교실은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새 대입제도가 이틀부터 적용되기 때

문이다.

중3 학생들은 문·이과 폐지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면 싫어하는 수학을 수II까지 해야 하는 건지, 배워야 할 교과과목이 더 늘어나는 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면서 한숨 짓는 학생도 있었다. 영어·수학·과학에 이어 한국사 학원까지 다

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잦은 대입제도 변경에 분노했다. 특히 A/B형으로 나뉠 수 준별 수능을 놓고 “올해 딱 1번 시행하려고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를 말렸나”며 분개했다.

여수에 사는 임모(47) 씨는 “아들이 중2인데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며 “얼마 안가 또 바뀔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꼬집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는 언제 방침 철회해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3 아들을 둔 고모(여·49·광주시 서구 쌍촌동) 씨는 “이랬다 저랬다

화가 난다. 정부가 NEAT 바람을 넣어 학원도 바뀌고며 준비를 해 왔는데 한순간에 없었던 일로 했다”며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그럴 수도 없고 생각을 말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둔 중3 학부모들은 자사고·특목고 진학 여부를 놓고 골치 아파했다.

딸을 자사고에 보내려던 학부모 조모(여·45·광주시 동구 계림동) 씨는 성취평가제가 유보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절대평가방식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유보하고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대평가를 하면 성적 우수자가 모인 자사고나 특목고는 내신에서 불리해지는 탓이다.

임성호 하남교육 대표는 “내신에서 불리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의 다양한 활동과 논술 준비, 수능 대비를 고려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입전형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고 했지만 생활부, 논술, 수능 모두 채택해 부담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시 비중 확대, 논술 시험 강화”로

약되는 대입전형 변경이 광주·전남지역에 사는 아이에게 유리하지, 불리한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하소연했다. 오히려 수능과 논술이 강조되면서 사고 육비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환영한다는 여론도 있다.

김성식 광주대동고 진학부장은 “수준별 수능 폐지, 정시모집 확대 등 대입제도 변화를 환영한다”면서 “수능성적 중심의 정시 모집이 확대되면 공부를 잘하는 광주학생들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니웃침 (8875)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달리던 트럭 유리창 깨져

지난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모(49)씨가 트럭을 몰고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모 골프장과 인접한 여수~순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골프장 쪽에서 날아온 물체가 조수석 유리창을 충격하면서 유리창에 금이 가고 오른쪽 백미러도 깨졌다.

해당 골프장 측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서씨가 입은 물적 피해를 보상해줄기로 합의했다.

/순천=김은경기자 ejkim@

편의점 강도 옷차림이 수상해 ‘달미’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홀로 있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수상한 옷차림 때문에 경찰에 달미.

○28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황모(28)씨는 이날 새벽 5시께 광주시 광산구 생암동 G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모(여·29)씨를 위협, 현금 21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편의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걸터가던 황씨의 인상착의가 신고 내용과 비슷한 점에 주목, 10여분 만에 황씨를 검거.

/최승렬기자 srchoi@

공군 T-50 사고 현장 논란 주민들 상무지구 바로 옆에 추락 “매일 훈련...무서워 살겠나”

처참한 사고 안타까워

28일 공군의 초음속 훈련기 T-50 추락 현장은 처참했다. 육중한 기체는 네 통강으로 산산조각나 훈련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폭발 당시 상황을 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폐기를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임도환(48)씨는 “낮게 날던 훈련기 기체가 바다를 들이받더니 빙그르르 돌면서 공중에서 폭발했고 바로 추락해 산산조각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훈련기는 군 공항 인근에서 수평으로 낮게 날더니 영산강 자전거 도로 위를 지나 둔치를 들이받은 뒤 다시 떠올라 공중에서 한 차례 폭발한 다음 눈에 추락했다는 게 목격자 증언이다.

훈련기가 추락한 신아촌 마을 주민 김재문(51·광산구 신촌동)씨는 “부추하루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 소리가 나 살펴보니 하수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비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논 한가운데 떨어진 훈련기는 꼬리 부분만 남았고 날개와 조종석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폭발은 충격으로 불이나 검게 타버렸고 도로 위 나무도 모조리 가지가 꺾여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도로와 풀 밭에는 사고 훈련기의 잔해와 부속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사고기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는 찢긴 낙하산이 주인을 잃은 채 떨어져 있었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곳이 상무지구에 인접한데다, 민가에서 불과 600m 가량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매일 비행 훈련을 하는 공군 훈련기가 끊어질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민 서기춘(58)씨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20년 전부터 비행장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사고까지 하니 훨씬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민 송화자(62·여)씨도 “매번 훈련할때 마다 불안불안 했는데, 사고가 나다니 안타깝다”고 했고 김재문씨도 “민간인 피해는 없었지만 무서워 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28일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공군의 T-50 고등훈련기 추락 현장. 꼬리 부분만 남은 훈련기 잔해, 찢긴 낙하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사고 당시 화염으로 일대 풀밭이 검게 타다.

잔해 널린 추락 현장

■ 광주서 T-50 고등 훈련기 추락

제조사	한국 항공공우주산업(KAI)	엔진주력	8,029kg
길이	13.14m	무장탑재능력	4,536kg
폭	9.45m	레이더	EL-2032
높이	4.94m	최대속도	미하 1.5(초음속)

- 추락 시간: 28일 오후 2시 10분
- 추락 위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공군기지 인근
- 탑승자: 공군 1전투비행단 소속 소령 1명·대위 1명·사령

대법, 광주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동’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광주시 학교자치조례가 당분간 보류됐다. 대법원이 교육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자치조례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 1부는 교육부가 낸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제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

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대법원의 일차된 의견으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2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오는 9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조례를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인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상준환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 북경당 인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비/시간
평 일: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성사를 호남 1위

배준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업, 전주고등학교출업]

초혼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 추천회원</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7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8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70세</p> <p>‘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3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